

# 근대 조선 기생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희\*  
gounder33@nate.com

## <目次>

- |                      |                         |
|----------------------|-------------------------|
| 1. 서론                | 3. 근대 조선 기생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
| 2. 근대 조선 기생복식의 변화 요인 | 3.1 전통복식                |
| 2.1 사회적 요인           | 3.2 서양복식                |
| 2.2 문화적 요인           | 3.3 확장                  |
| 2.3 경제적 요인           | 4. 결론                   |

주요어: 근대 조선 기생복식(Modern Joseon Gisaeng Costume), 근대 일본 여성복식(Modern Japanese Women's Costume), 문화접변(Cultural acculturation), 게이샤(Geisha), 기생단속령(Gisaeng regulations)

## 1. 서론

복식은 생물학적인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한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계층,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들은 그들 나름의 특유한 생활양식, 언어, 가치체계를 개발시켜 나가며) 그에 따른 특유의 복식문화를 가지게 된다.

조선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다. 1876년에 강화도조약으로 외국과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신·구사상, 개화와 보수 등의 양분화로 분열과 대립이 생겼으며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겨 일제의 식민정책 아래 놓이게 되었다. 1884년 동학농민운동을 발판으로 한 갑오개혁은 사회 전반에 일대 개혁을 이끌어내어 신분제 철폐, 죄인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재기허용 등의 조치를 이끌어냈다.) 조선의 근대화는 조선의 자율적인 의지가 아닌 일본에 의한 강압적인 수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서구의 문화나 문물 등도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가

\* 경성대학교 시간강사

1) 김경동(1997) 『현대의 사회학』서울: 박영사, p.59

2)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612-614

많았다.

근대에는 신분제 폐지와 여성 교육의 증가로 일반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복식에 반영되어 조선의 근대 복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 반면, 기생들은 경시청의 통제로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건’과 같은 단속령과 기생조합과 같은 제도 하에서 생활하였다. 당시 기생은 일반 여성과의 구별을 위해 복식에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속에서도 근대 조선 기생들은 당 시대 어느 여성보다도 신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다양한 외국인 손님과의 접촉이 많았으며 특히 일본인 고위계층, 관광객, 게이샤(芸者) 등과의 잦은 문화접변<sup>3)</sup>에 의해 일본 복식, 음악, 춤, 악기 등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의 연예인과 같은 대중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경시청의 통제 하에 역, 서점, 사진관 등에서 기생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엽서 등을 판매하고 라디오, 잡지, 광고 등에 기생을 소개하는 등, 일본의 풍속과 게이샤를 사진이나 엽서로 소개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sup>4)</sup>하여 조선의 기생을 널리 알렸다.

지금까지 기생에 관한 선행 연구<sup>5)</sup>는 기생에 관한 문헌과 회화자료가 많은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근대 조선 기생에 관한 선행연구<sup>6)</sup>는 대중매체에 나타난 복식을 중심으로

3) 우리말 샘 검색, 사회일반 전문가감수. <https://opendict.korean.go.kr>

‘문화접변이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직접적,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서로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하는 현상’

4)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서울: 민음사, p.19

‘19세기 말 사진과 우편산업의 발달로 사진엽서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는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식민지의 명소와 풍속을 소재로 한 다양한 종류의 사진엽서가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5) 박인애(2017)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기생의 미용문화에 나타난 조형성 분석」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경민(2010) 「조선후기 여성 신체관과 기녀복식의 표현미」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선(2005) 「조선시대 후기 기생복식이 일반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미현(2011) 「조선후기 미인도의 성격」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희(2016)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머리 재현」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유신(2007) 「Fashion leader로서의 妓生服飾: 朝鮮後記 妓生服飾의 美的特性和 價値를 中心으로」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송승연(2005) 「근대 기생복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은(2007) 「일제시대 기생과 여배우와의 관계: 대표적인 여배우를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07)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가영(2018) 「근대 인쇄매체에 나타나는 기생 초상사진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유진(2010) 「기생장신구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에서 근대를 중심으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구하거나 근대 조선 기생의 가무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근대 조선 기생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근대 일본 여성복식과 비교 연구해보려 한다.

본고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특수한 규정 아래서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을 혼용해서 착용했던 근대 조선 기생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당시 기생복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근대 일본 여성복식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근대 조선 기생복식과 근대 일본 여성복식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근대 조선 기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 근대 조선 기생복식의 변화 요인

### 2.1 사회적 요인

조선시대 관에 속한 기생은 ‘관기(官妓)’라 불렸으며, 여러 지역에서 뽑아 올린 한양의 기생을 경기(京妓), 각 지방의 기생을 향기(鄕妓)라 하였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관기제도는 변화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였고, 그 후 일본과의 불평등한 경제 관계에 기초한 대외무역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다. 또한, 일본에 의한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은 사회변동을 초래하여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 하였다. 조선왕실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895년 갑오개혁 때에 약 300명의 관기를 해고했으며<sup>7)</sup> 이후 관기제도는 폐지되었다.

자유로운 처지가 된 기생들은 당시 경제의 중심인 서울에 남아 기업(妓業)을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 향기(鄕妓)들도 서울로 올라와서 기업을 하였으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서민 여성들도 기업에 종사하는 등 기생의 숫자는 늘어만 갔다.

이와 같이, 기생의 숫자가 증가하자 경시청(警視廳)은 이들을 통제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생조합을 설치할 것을 명했다. 1908년 9월 15일에 기생이나 창기들에게 경시청에서 발급하는 인가증(認可證)으로 여행이나 공연을 하고 인가증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인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건」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9월 25일 기생과 창기를 구분하여 경시청은 제 5호 「기생단속령<sup>8)</sup>」과 「창기단속령」을 제정하였다.<sup>9)</sup>

7) 「개벽」제48호, 1924년 6월 1일

8) 한국학문헌연구소(1973) 『官報 舊韓』서울: 아세아문화사, p.1074

妓生團束令

제 1조기생으로 위업하는 자는 부모나 혹은 地에 대한 친족의 연서한 서면으로써 소할경찰관서(所轄警

경시청에 의해 설치된 기생조합은 평양 출신 기생들로 이루어진 ‘다동조합’과 서울 경기(京妓)들로 이루어진 ‘광고조합’이 있었다. 1914년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교방(敎坊)의 일본어 표현인 권번(券番)으로 호칭이 변경되면서 다동조합은 ‘조선권번’으로 광고조합은 ‘한성권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이외에도 경상도와 전라도 두 지방 기생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남권번’ 등이 있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기생권번은 존재하였다.<sup>10)</sup>

권번은 경시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으며, 어린 기생들을 발굴하고 기예(技藝)등의 교육에 힘썼다. 권번은 교육 일정을 마친 기생을 요릿집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권번을 관리해 나갔다.<sup>11)</sup> 이들 권번은 1940년대까지 존재하다가 일제 강점기 말 제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질 무렵 일제의 정책으로 폐쇄되었다.<sup>12)</sup>

이와 같이, 권번에 소속된 기생들에게는 권번과 경시청의 규제 아래 일반 여성들과 구별하기 위한 복장 규정이 주어졌다.

근대 조선 기생들은 권번에서 규정한 규칙에 의해 요릿집에 나갈 땐 단발을 할 수 없었고, 색의장려(色衣獎勵)에 의해 색이 있는 무색옷<sup>13)</sup>을 착용할 것을 강요받았다.<sup>14)</sup> 규정된 기생복식은 일반 여성의 복식과 구별되는 형태였다. 우선, 기생의 치마길이는 일반 부녀자와 여학생보다 길어서 땅에 끌렸고 치마여밈은 일반 여성이 오른쪽, 그리고 기생은 왼쪽으로 착용했다. 당시 기생들은 긴 치마를 몸에 휘감아 입었기에 사회에서는 일반 부녀자들에게 치마를 기생처럼 착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한, 근대 여성들은 내외법이 없어지고 교육이 증가하면서 외출이 잦아지자 거추장스러운 장옷 대신 양산을 쓰게 되었다. 이에 기생과 일반 여성들은 양산의 색상으로 차별을 두었다. 일반 여성들은 검은색 양산을 사용했으며 기생들은 붉은색 양산을 사용하였다.<sup>15)</sup>

察官署) 經학교 경시청(警視廳)에 신고하여 인가증을受함이可함.

제 2조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조합을設하고 규약을定하여 경시청에 허가를受함이可함.

제 3조 경시청은 풍속을害하거나 혹 공안을 문란 하는 虞가 有한 줄로 인하는 시는 기생위업을 금지하며 혹 정지하는 事가 有함.

제 4조 제 1종의 인가증을受치 아니하고 기생을 위업하는 자는 십일 이하의 구류(拘留)나 또는 십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 5조 현재 기생으로 위업하는 자는 本令 시행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제 1조의 규정을 준행함이 可함.

9) 신현규(2005) 『꽃을 잡고』 서울: 경덕, p.48

10) 신현규(2005), 앞의 책, pp.50-56

11) 박애경(2001) 「‘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女性)이론』 4호, pp.229-230

12) 이창배(1976) 『韓國歌唱大系』 서울: 흥인문화사, p.168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무색옷-물감을 들인 천으로 만든 옷 색복, 색옷, 색의

14) 「매일신보」 1937년 12월 16일, 2면 7단 ‘妓生은 妓生처럼 妓生道를 직히라’.

15) 한호윤(1910) 「조선의 기생」 『문예구락부』 16권 13호, p.150

그러나 기생들은 복장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여성이나 여학생처럼 단발을 하거나 흰색저고리에 짧은 검정치마를 착용하는 등 자신이 기생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생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단발에 대한 비판과 여학생 교복의 변화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 2.2 문화적 요인

문화접변이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직접적,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서로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하는 현상<sup>16)</sup>을 말한다. 일제 강점기 하에 있었던 근대 서울에는 일본의 게이샤(藝妓)들도 권번을 설치하여 조선 기생들과 함께 요릿집에 나와 기업(妓業)을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기업을 하던 게이샤들은 조선의 기생제도가 낫설지 않았는데 이는 게이샤의 생활<sup>17)</sup>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 조선 기생과 일본 게이샤들이 함께 기업을 했다는 사실은 일본인에게 경성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 경성관광협회에서 발행한 『경성명물』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확인된다. 『경성명물』에 실린 사진을 보면 조선권번의 기생과 본권번, 신정권번의 일본 게이샤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8)</sup>



출처: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그림1> 『경성명물』에 소개된 조선 기생과 일본 게이샤

16) 우리말 샘 검색, 사회일반 전문가감수. <https://opendict.korean.go.kr>

17) Liza Crihfield Dalby저, 유용훈 역(1999) 『게이샤』, p.72

‘메이지 시대에 게이샤들은 노코바(旅行)란 곳에서 음악, 무용, 다도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찻집에서 예기들을 필요로 할 때는 심부름꾼을 젠반(券番)에 보내 ‘A라는 찻집에서 B라는 손님 C를 찾는다’라고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면 젠반은 다시 심부름꾼을 노코바에 보내 해당 게이샤를 불러온다. 손님과의 일이 끝나면 게이샤들은 다시 노코바로 돌아간다. 즉 일본의 찻집은 조선의 요릿집과, 노코바나 젠반은 권번과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18) 권혁희(2005), 앞의 책, p.234

당시 조선인의 임금만 일본인의 반밖에 되지 않았고 기생들의 화대(花代) 역시 차별이 존재했다.<sup>19)</sup> 화대의 차별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켰으며 조선 기생들은 게이샤들과 외모를 비슷하게 꾸밈으로써 자신들도 게이샤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였다. 더욱이 요릿집 손님 중에는 일본의 고위관리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 기생들은 일본의 춤과 노래, 악기 등을 익히면서 게이샤의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 손님들 중에는 일본인 외에 서양인도 있었으며 관광객들에게 기생은 인기가 높았다. 조선총독부의 관할 하에 있던 각 철도역, 호텔, 기차 안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지, 서점, 사진관 등에서는 관광지도와 함께 기생사진이 담긴 엽서가 다량 판매되었다.<sup>20)</sup> 당시 기사<sup>21)</sup>들을 통해 기생들은 박람회(博覽會)에 참석한 외국인들에게 공연을 하면서 박람회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주기도 했다. 기생들은 외국 손님을 위해 외국의 춤과 노래를 공연했는데 변화된 기예(技藝)와 함께 공연복도 서구적으로 변화하여 노출이 심했다. 이에 당시 신문에는 이를 맹렬히 비난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sup>22)</sup>

이와 함께 근대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신문, 영화, 라디오,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도시문화가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에 예전보다 기생 문화가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기생들은 자신들의 기예를 상업화하여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대중예인으로 자리잡아갔다.<sup>23)</sup> 『매일신보』는 한 해 동안 ‘예단일백인(藝壇一白人)’이라는 기생을 소개하는 연재물을 실었고 잡지에는 기생의 사진과 소개글이 담긴 기생 홍보란<sup>24)</sup>이나 기생의 나이를

19) 송연옥(1998) 「대한제국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 일제 신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40호, p.270

‘1901년 부산의 게이샤의 화대는 1시간에 60전(錢)이었고 하루를 3구분하여 한 구분이 3원(圓)이었으나, 한국의 기생은 주야(晝夜)로 구분해서 한 구분이 1월 50전이였다.’

20) 권행가(2001)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제 12호, p.84

21) 「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

‘박람회(博覽會)다! 박람회다! 이때를 노치면 큰 낭패다! 三十萬 서울은 백만 이백만이된다. 러관업(旅館業)이다. 음식점(飲食店)이다. 평양(平壤)에서는 기생들이 총동원(總動員)으로 서울에 원정(遠征)을 온단다. 술장사 밥장사! 계집장사! 험심패! 날랑패! 부랑자! 거관 등등등 이렇게 아죽도 석달이나 남은 박람회의 ‘포스터’를 둘러싸고서 야단법석이다.(하략)’

22) 「매일신보」 1919년 11월 14일 ‘개량할 기생의 의복 上’.

‘근래 기생들의 의복을 볼진대 구역나는 때도 있고 미운게 보이는 때도 없지 않다.(중략) 기생들이 보통 즉석에서 빈객을 접대할 때에도 이러한 악풍이 있지만은 이것은 차치 물론하고라도 근일의 사회공중의 앞에 기생의 태면을 가지고 출현할 때에도 의복으로 인하여 눈썹이 틀리고 남의 욕을 먹는 일이 많이 있으니 (중략) 다동조합의 기생들이 출현한 일이 있다. 그때 그네들의 의복을 보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중략) 무지개물론 화려하게는 보인다면은 그 옷감으로 말하면 ㄴ | 디 사람들의 이,삼체의 어린아 | 의 옷감이거나 혹 그렇지 않으면 깔고 앉는 방석감이오 (중략) 춤출 때 입는 옷은 도선에도 업습이 안이오 또 옷감으로도 말하더라도 그 외에 훌룡한 것이 만갠것날 남들의 방석감으로 옷을 지어 입고도 유유자약하야 무대 위에서 뛰노니 우리의 눈에 욕직이가 날 때에야 외국인이 보고는 엇더케 생각하랴’

23) 호현화(2004) 「예단일백인을 통해 본 1910년대 기생집단의 성격」 『어문논집』 제49집, p.318

24) 「신여성」 제69호, 1934년 4월 4일, pp.152-153

맞춰보라는 퀴즈<sup>25)</sup> 등도 있어 당시 기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기생들에게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는 공연복 외에 일상복에도 서양문물을 가미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2.3 경제적 요인

근대 조선 기생은 관기제도의 폐지로 더 이상 관록(官祿)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책임은 각자의 몫이 되었다. 기생들은 집에 대기해 있다가 권번으로부터 지휘장(指揮狀)이 나오면 기업을 나갈 준비를 했다. 지휘장은 인력거꾼이 돌아다니며 기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녁때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와서 인력거로 기생들을 요릿집에 태워다 주었다.

<그림2>는 기생이 인력거 위에서 붉은 양산을 쓰고 상아 파이프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힘없이 보이는 양반을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다. 이처럼 요릿집에 불러간 기생은 <그림3>과 같이 가무음곡(歌舞音曲)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화대(花代)를 받았다. 화대는 기생과 소속된 권번이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졌다. 당시 권번은 경시청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생을 관리하고 교육했으며, 기생의 회비로 운영되었다.<sup>26)</sup>



출처: 『조선 만화』



출처: 『꽃을 잡고』

<그림2> 하이카라 기생

<그림3> 가무음곡(歌舞音曲)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

25) 「新年大懸當募集」『별진곤』제36호, 1931년 1월 1일, p.128

26) 이창배(1976), 앞의 책, p.167

지휘장(指揮狀)이란 특정 요릿집으로 가라는 통지서이다.

1937년 각 기생들의 6개월간의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종로권번의 기생 최금란 1875원(한 달 약 312원), 조선권번의 기생 박소향 396원(한 달 약 66원), 한성권번의 기생 정훤 523원(한 달 약 87원) 등으로<sup>27)</sup> <표1>의 1932년에 조사된 ‘도시의 생활전선: 설문조사’에 실린 당시 근로자 평균 임금과 비교해 보면 당시 기생의 수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1> 1932년 근로자 평균 임금<sup>28)</sup>

하루 수입 기준		한 달 수입 기준	
버스걸	0.75원	은행원(보너스 포함)	70원
여점원	0.7원	여교사	45원
냉면배달	0.3원		
신발수리공	0.5원		
숨 만드는 일	0.7원		
막노동	0.5원		
카페여급	5.6원		

일부 기생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입을 가졌고 이를 이용해 시계나 금니 등과 같은 금(金)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치풍조를 일으킨다고 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의 과시는 손님에게 인기가 많은 소수의 기생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기생들은 손님의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

### 3. 근대 조선 기생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근대 조선 기생복식을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으로 구분하여 두식, 의복, 장식품의 순서와 화장을 근대 일본 여성의 복식과 비교하여 연구해 보았다.

27) 신현규(2005), 앞의 책, p.41

28) 신현규(2005), 위의 책,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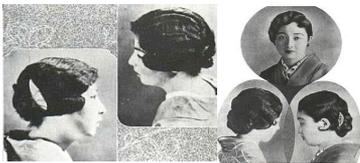
### 3.1 전통복식

#### 1) 두식

조선후기 기생의 머리형태는 쪽진머리로 5대5 가르마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정히 뒤로 쪽을 지어 올린 뒤 비녀와 뒤꽂이를 꽂아 장식하였다.

근대 사진 속의 기생들은 대부분 쪽진머리를 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기존의 쪽진머리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에서 유행하던 머리 형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 다이쇼(大正)7-8년(1918-1919)에 여배우들 사이에서 가르마를 7대3, 6대4로 나누어 인두로 웨이브를 넣었다. 또한, 다이쇼(大正)9년(1920)부터는 이마부터 웨이브를 넣어 양쪽 귀를 가리는 형태인 미미가쿠시(耳隠)가 유행했으며 쇼와(昭和)3-4년(1928-1929)에는 양쪽 귀를 가리는 형태에서 한쪽 귀를 드러낸 형태인 미미다시(耳出)가 유행하였다.<sup>29)</sup> <표2>를 통해 조선후기 기생의 쪽진머리형태에서 근대 일본 여성의 머리형태가 유행하여 변화된 근대 조선 기생의 머리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표2> 전통쪽진머리 형태, 근대 일본 여성 머리 형태, 근대 조선 기생의 쪽진머리 형태 비교

	조선후기 기생	근대 일본 여성	근대 조선 기생
머리 형태			
출처	미인도, 동아대 박물관	7대3 耳隠, 7대3 耳出 『モダン化粧史』	옆가르마, 애교머리, 웨이브 『엽서속의 기생읽기』 『寫眞으로보는韓國百年』

1920년대 기생들 사이에서는 머릿기름을 적게 발라 애교머리가 이마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는 형태가 유행하였다.<sup>30)</sup> 또한, 정수리에 타던 기생들의 가르마는 한쪽 방향으로 쓸리기 시작하였다. 1930년 『별건곤』에 실린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당시 가운데 가르마를 구식기생으로, 그리고 왼쪽 가르마를 신식기생으로 인식할 정도로 가르마의 방향이 큰 화제가 되었다.

29) 황정윤(2002) 「일본 여성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7

30) 「女學生의 名人名觀」 『신여성』 제25호, 1926년 4월 1일, p.44

조선시대부터 쪽진머리 형태에는 비녀와 뒤꽂이로 장식하였다. 근대 조선 기생 역시 변화된 쪽진머리 형태에 전통의 비녀와 뒤꽂이 장식을 하였다. 신문기사<sup>31)</sup>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생들은 머리 장신구에 특정 표시를 넣어 일반 여성들과 구별하였으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에는 머리 장신구가 자세히 나타난 사진이 없기에 머리 장신구의 표시가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는 없다.

이를 통해 근대 일본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던 머리 형태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이나 유학생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었으며 기생들은 일본풍의 새로운 머리 형태를 빠르게 받아들여 기존의 쪽진머리에 가르마를 바꾸거나 웨이브를 넣고 애교머리를 내리는 등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여 남다른 맵시를 뽐냈다.

## 2) 의복

### (1) 저고리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는 착수(窄袖)로 겨드랑이 살이 보일 정도로 짧아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는 가리개용 허리띠를 착용했다. 이후 1900년대 초부터 여성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의복을 간편하게 개량하기 시작했다. 저고리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신여성과 여학생의 저고리도 길어졌다. 1940년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배꼽을 덮을 만큼 길어졌고 화장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짧아졌다.<sup>32)</sup> 또한, 고름 대신 단추를 달기도 하였다.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 년도가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표3>과 같이 기생의 저고리는 1900년대에도 여전히 짧은 형태였으나, 1910년대부터 길어지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신여성의 저고리만큼이나 길어졌다.

31) 『매일신보』1919년 12월 9일, ‘귀부인인지 기생인지 모를 우리 조선사회 의복하현상- 어찌하면 구별한가?’. ‘어느 나라 기생이던지 다 각기 판별되는 표식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처하던지 기생은 기생이고 부인은 부인으로 쉽게 알아보기 좋게 하여야 풍속상 폐해가 적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일이라. (중략) 조선의 기생 사회를 보면 오늘날 아무 구별이 없이 되어 흡사히 여염집 모양낸 부인과 같으며 또 남의 소실과도 같아 도무지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한남권번이던지 한성권번에서 금속물로 글자나 한자를 빗치개 비슷하게 만들어서 머리에 꽂게 하여 알아보기 좋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 또한, 없어지고 어떤 건방진 기생은 길에 나서면 기생이라는 태도를 없애고 좀 높이 보여 대우를 받을 작정으로 그 언어 동작이던지 그 복색을 아무쪼록 같이하고자 하여 도저히 그 행색을 구별하여 볼 수가 없는 터이라 이것이 지금에 시급히 개량할 요점이라 하겠다.’

32)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p.367

<표3> 근대 조선 기생의 저고리길이 변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저고리길이			
출처	『엽서속의 기생읽기』		

1924년 『신여성』에 실린 기사<sup>33)</sup>의 내용으로 ‘소매가 기생의 본을 뺐는지 매우 넓다’라는 것은 당시 기생의 저고리 소매가 일반 여성의 저고리 소매보다 넓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뒤장둥이가 양편은 칼로 어여낸 것 같다’고 묘사한 것은 근대에 서울 여성들이 서북지방 여성들이 착용했던 혼술<sup>34)</sup>을 둔 저고리를 착용했음을 알려 준다. 서북지방 여성들은 양 소매에 가로 방향으로 혼술을 둔 저고리를 입었다.

근대에 일반 여성들의 저고리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진동도 예전보다 넉넉해졌다. 그러나 기생들의 저고리는 길이가 길어진데 비해 진동은 여전히 짧아 저고리를 착용했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조이는 경향이 있었다. 저고리의 겨드랑이 부분이 조이고 소매통은 넓어진 것인데, 이로 인해 춤을 출 때 조이는 진동으로 춤 선은 날렵하나 넓은 소매통으로 너울거리는 모양새가 아름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에는 저고리 위에 마고자를 입은 기생들이 자주 보인다. 근대의 여성 마고자는 남성 마고자를 모방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날씨가 추운 서북지방의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애용되었다.<sup>35)</sup> 또한, 갑오경장 후 여성들의 외부활동이 허용되자 여성들은

33) 「美觀上으로 보아서」 『신여성』 제10호, 1924년 11월 17일, p.8  
 ‘女學生 衣服은 前日보다 훨씬 나히것다. (중략) 저고리는 좀 나히것스나 너무도 기러져서 엇개하고 다리에는 업는것 갖다. 그러고 소매가 姪生 본을 뺐는지 넘우 넓더서 뒤로 보면 팔 업는 木製人形에 저고리만 써운것 가티 뒤등장이 兩便은 칼로 어여낸 것 갖고 두 팔은 몸이 움죽이는대로 소매만 근덩거리는것 갖다.(하략)’

34)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1998)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개화이후-해방전후』 서울: 현암사, pp.91-92  
 ‘혼술은 소매 중간에 접어 넣은 술기(두 폭을 맞대고 꿰맨 선)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래(소매 아래쪽의 등근부분)의 가장자리가 해지거나 옷감이 줄었을 때 술기를 조금씩 내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소매에 여분의 분량을 미리 접어 넣어두는 것이다.’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했다. 여학교에서는 겨울에 검정색 두루마기를 주로 착용했으나 기생들은 규정상 화려하게 염색된 옷을 입었을 것이다. 이후 서양 복식인 외투가 등장하자 전통복식인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대신 외투를 걸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 조선 기생의 저고리는 일반 여성들의 저고리보다 뒤늦게 길어졌고 소매통은 일반 여성의 저고리 소매통보다 더 넓어졌으며 진동은 여전히 짧아 착용 시 겨드랑이 부분이 조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근대 서울에서 기업을 하던 평양 기생들의 영향으로 혼술을 둔 저고리와 여성 마고자가 유행하였다.

**(2) 치마**

조선후기 기생은 몸에 꼭 맞는 저고리와 속옷으로 부풀린 풍성한 치마를 입어 하후상백(下厚上薄)의 실루엣을 이루었다. 또한, 긴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끈으로 매어 속옷을 노출시키는 ‘거들치마’를 입었다.

반면, 근대 조선 기생들은 겹겹이 입던 속옷을 간소화하면서 치마의 부피는 줄이고 긴 치마를 몸에 휘휘 감아 입었다. 이러한 모양새의 치마를 ‘주릿대치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마치 ‘주릿대’같이 틀어 입은 모양에서 생긴 이름으로 ‘주리’란 형벌용 도구로 주릿대를 맞을 것들이라는 일반 여성의 기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깃들어 있었다.<sup>35)</sup>

<표4> 일본 게이샤의 실루엣에 영향을 받은 근대 조선 기생의 주릿대치마

	조선후기 거들치마	게이샤의 기모노	근대 조선 기생 주릿대치마
형태			
출처	신윤복, 주유청강	『게이샤』	『근대 문화사 읽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

35) 유희경(1975), 앞의 책, p.654

36) 김영숙(1999) 『한국복식문화사전』서울: 미술문화, p.342

<표4>를 통해 조선후기 ‘거들치마’와 근대 ‘주릿대치마’는 모두 치마를 걷어 올려 끈으로 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거들치마는 풍성한 곡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반면, 주릿대치마는 일자의 가녀린 직선미가 느껴진다. 이는 속속곳과 다리속곳 대신 팬티를 입고 그 위에 ‘사루마’라는 무명의 짧은 팬티를 입으며 흰색 인조견의 어깨허리 속치마를 걸치마보다 약간 짧게 해서 입었<sup>37)</sup>기 때문이다.

또한, 주릿대치마를 입은 근대 조선 기생의 모습과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의 실루엣이 매우 흡사하다. 게이샤는 기모노와 오비를 일자형으로 날씬한 선을 강조하면서 긴장된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었다.<sup>38)</sup> 근대 조선 기생들은 긴 치마를 몸에 휘감은 후 허리띠로 고정하여 게이샤 처럼 직선의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근대 조선 기생의 치마 실루엣이 게이샤의 기모노와 유사한 것은 당시 요릿집 손님 중에 외국인 손님이 많았고 그 중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기생들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일본 춤과 노래, 악기 등을 익혔으며 기예(技藝)뿐 아니라 외모도 일본풍으로 맞춘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기생들이 게이샤들의 외모를 모방한 데는 두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화대(花代)의 차별<sup>39)</sup> 문제도 있었다. 근대에 게이샤와 조선 기생 사이에는 화대의 차별이 있어서 조선 기생의 화대는 게이샤의 반에도 못 미쳤다. 기생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이샤들은 조선 기생들의 부러움과 모방의 대상이었다.

### 3) 장식품

#### (1) 고름 장식핀

근대에 들어 저고리가 길어지면서 노리개는 점차 사라지고 <표5>와 같이 기생들은 옷고름에 핀(pin) 형식의 브로치를 착용하였다. 이는 당시 남성들의 시계줄과 비슷한 형태였다. 회중시계는 조끼나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할 때에도 늘어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sup>40)</sup> 근대 조선 기생의 고름 장식핀은 당시 남성들이 착용했던 시계줄에 영향을 받아 새로이 등장한 장신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생의 고름 장식핀은 일반 여성이 착용한 경우가 없었고 당시 신문광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기생들만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7) 유희경·김문자(1998), 앞의 책, p.369  
 38) Liza Cihfield Dalby 저, 유용훈 역(1999), 앞의 책, p.289  
 39) 송연옥(1998), 앞의 논문, p.270  
 40) 금기숙 외 (2002) 『현대 패션 100년』서울: 교문사, p.57

<표5> 각 권번에 따라 형태가 다른 근대 조선 기생의 고름 장식핀

	평양 기생 김영월	평양 기생 노은홍	불확실
형태			
출처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미지로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www.koreanity.com

이와 같이 근대 조선 기생들은 저고리가 길어지면서 예전의 노리개 대신 고름 장식핀을 착용하였고 이는 소속 권번의 표식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름 장식핀은 이후 일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일반 여성들도 고름에 핀을 착용하게 되었다.

## (2) 신발

조선시대 기생은 양반부녀자들과 같이 가죽과 비단으로 만든 당혜(唐鞋)나 운혜(雲鞋)를 신었다. 1910년대까지 부유층 여성들이나 기생들은 갓신이나 삼색 미투리를 신었다.<sup>41)</sup> 1920년대부터 고무신이 나오게 되자 고무신을 신었다.<sup>42)</sup> 고무신은 초기에 검정색으로 나오다가 이후 흰 고무신이 나왔다. 검정고무신에 비해 흰 고무신의 가격은 비쌌기 때문에 흰 고무신은 도시의 부녀자들이나 기생들이 신었다.<sup>43)</sup> 이처럼 근대 조선 기생들은 자신들의 긴 치마에 잘 어울리고 값비싼 갓신보다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흰색 고무신을 즐겨 신었다.<sup>44)</sup>

## 3.2 서양복식

### 1) 두식

근대 조선 여성들의 단발은 1920년대에 시작되어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단발한 여성

41) 이경자 외(2003) 『우리 옷과 장신구』서울: 열화당, pp.176-177

42) 금기숙 외(2002), 앞의 책, p.80

43) 조풍연(1989) 『서울 잡학 사전: 개화기의 서울 풍속도』서울: 정동출판사, p.107

44) 유희경(1975), 위의 책, pp.656-657

들은 모단(단) 걸(毛斷傑-modern girl)이라 불렀다.<sup>45)</sup> 단발은 일부 신여성들에게 전파되었으나 당시 사회에서 단발의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1927년 『별건곤』에 실린 기사<sup>46)</su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신여성의 단발은 일반 부녀자들에게는 따라 하기 힘든 파격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패션리더인 기생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머리 형태인 단발을 주저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표6> 근대 일본 여성의 단발과 근대 조선 기생의 단발 형태 비교

	근대 일본 여성	근대 조선 기생
단발		
출처	단발, 모자, 입체화장 『근대 일본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	단발, 모자, 양장(朝鮮券番 張蓮玉) 『大京城案内』(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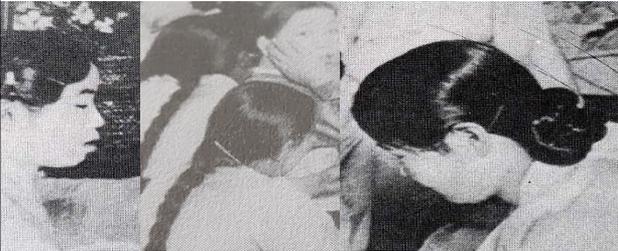
<표6>를 통해 근대 일본에서도 단발을 한 여성들은 신여성으로서 양장을 입고 모자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조선 기생의 단발과 양장, 모자를 쓴 사진은 많은 숫자가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권번의 기생 장연옥의 사진으로 기생 역시 신여성과 같이 단발에 모자를 쓰고 양장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권번에서는 기생들이 단발을 하고 요릿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에 단발을 한 기생들은 요릿집에 나갈 때는 단발을 하나로 묶은 후 짧은 뽕지머리에 다리를 들어 쪽진머리로 위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는 동기(童妓) 춘심이 단발에 다리(月子)를 들어 땡기머리를 한 모습이 묘사<sup>47)</sup>되어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묘사와 <표7>의

45) 공승연(2006) 「근대 기생복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6) 『별건곤』제 10호, 1927년 12월 20일, ‘데카단의 象徴’, pp.118~120  
 ‘모던 걸, 모던 보이라는 말을 일본이나 조선서는 ‘불량소녀’, ‘불량소년’ 비슷한 의미로써 쓰는 까닭에 그렇게도 느껴졌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도 현숙하고 건실하다는 느낌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중략) 심한 이는 ‘못된 걸’, ‘못된 보이’라고까지 부른다.’  
 47) 채만식(1994) 『태평천하』서울: 신원문화사, pp.18-19  
 “나이가 아직 열다섯 사이라 얼굴이 피지는 않았어도 보고 듣는 게 그런 탓으로 몸매하며 제법 계집에

사진을 통해 잔머리나 웨이브를 고정하기 위해 머리핀을 사용하였으며 근대 일본 여성의 머리핀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은 형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쪽진머리가 화려한 머리핀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7> 근대 일본 여성의 머리 핀과 근대 조선 기생의 머리 핀 착용 형태 비교

	근대 일본 여성	근대 조선 기생
머리핀 착용 형태		
출처	耳隠 『モダン化粧史』	웨이브 고정, 단발머리에 다리를 고정 『寫眞으로보는韓國百年』『엽서속의 기생읽기』

이처럼 권변에서 기생들의 단발을 금지함으로써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에는 단발을 한 기생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쪽진머리를 하고 있다.

## 2) 의복

초기 양장은 주로 유학생 출신의 신여성, 상류계급의 여성이나 기생 등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근대 조선 기생들은 연회나 박람회 등을 통해 당시 일반 여성들에 비해 외국 사람들과 신식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전도부인들이 서양 여성들을 접하면서 그들 의복의 편리함을 보고 이를 모방할 때 양장(洋裝)을 직접 착용하기보다는 우선 우리 옷을 개량하여 입었듯이,<sup>48)</sup> 기생들도 바로 양장을 착용하기보다는 전통복식인 치마, 저고리에 서구적인 머리 형태를 하고 슐이나 핸드백 등을 착용하거나 장갑, 코트 등을 걸쳤다. 근대에는 이를 ‘반양복’이라 하여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을 혼용하여 착용하였다.

기생의 양장 및 반양복의 착용은 신문에 게재<sup>49)</sup>될 만큼 감시와 규제 속에 있었고 사람

꼴이 박였습니다. 머리를 늘쩍늘쩍 땀아 내려 자주맹기를 드린 머리채가 방둥이에서 유난히 치렁치렁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는 알고 보면 중등을 몽땅 자른 단발머리에다가 다래를 드린 거랍니다. 앞머리는 좀 자르기도 하고 지져서 오려 붙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핀을 꽂았습니다.”

48) 유희경·김문자(1998), 위의 책, p.357

들의 관심거리였다. 또한, 여학생의 복장이 점차 반양복으로 변화되자 기생과 여학생을 구별하기 위하여 기생의 반양복 차림을 금지<sup>50)</sup>하였다. 그러나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에는 반양복 차림의 기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8> 근대 일본 여성의 반양복과 양장에 영향을 받은 근대 조선 기생의 반양복, 양장

	근대 일본 여성의 반양복과 양장	근대 조선 기생의 반양복	근대 조선 기생의 양장
형태			
출처	『근대 일본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표8>을 통해서 근대 일본의 여성복식은 전통의 기모노에 게타를 신고 외투를 걸치거나 양산을 드는 반양복과 양장 원피스에 구두, 모자를 착용한 신여성 스타일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기생의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통한복 위에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핸드백을 든 반양복차림의 기생과 양장 원피스에 핸드백, 하이힐을 신은 기생의 사진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장은 1930년대 여학생의 교복이 양장으로 변화되면서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많이 착용되었다.<sup>51)</sup> 기생들의 경우 요릿집에 나갈 때는 전통한복을 착용하였지만 그 외에는 반양복이나 양장을 입었다.

근대 조선 기생사진 중에는 반양복 차림의 기생들이 많았으며, 사진의 배경으로 유추해보면

49) 「妓生の 半洋服」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9일  
 ‘妓生等に 복색을 양복으로 改着한다는 說은 前報의 已揭어니와 昨日의 일제히 반양복으로 變着하였다더라.’

50) 「假裝嚴禁」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30일  
 ‘近日來 娼妓 等이 往往 女學徒의 服裝을 飾하고 往路에 출입하면서 蕩子를 誘引하는 弊가 有하다 하여 警視廳에서 此를 團束키 爲하야 女學徒 外에는 半洋裝을 嚴禁한다더라.’

51)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2001) 『우리옷 이천 년』 서울: 미술문화, p.133

대부분 사진관에서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1915년 10월 29일자에 대공진회 인쇄사진관에서 기생사진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실리고 공진회의 인쇄사진관에서 등신대(等身大)의 기생사진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존하는 근대 조선 기생사진의 대다수는 상품화를 위해 사진관에서 찍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처럼 근대 조선 기생은 주로 전통의 한복과 쪽진머리에 서양의 장식품 등을 혼용한 반양복을 착용하였다. 이후 기생과 여학생을 구분 짓기 위해 기생들에게 반양복을 금지하였으나 근대 조선 기생 사진 중 반양복 차림이 많은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 3) 장식품

#### (1) 허리띠

근대 조선 기생들은 당시 서양 복식의 영향을 받아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기까지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고자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하지만 근대 조선 기생의 경우 가슴과 힙의 강조보다는 가느다란 허리와 허리띠를 착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자형 실루엣에 초점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게이샤와 같은 일자형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 서양의 소품인 허리띠를 착용한 것이다.

#### (2) 솔(shawl)

근대 여성들은 이전보다 외출이 잦아지면서 방한용으로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이후 솔이 등장하자 <표9>와 같이 여성들은 방한용으로 간편한 솔을 들었다.<sup>53)</sup> 또한, 기생뿐만 아니라 일반 부녀자도 우아한 멋을 연출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솔을 걸쳤다.

1930년대에는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여우목도리가 유행하여<sup>54)</sup> 두루마기 위에 이를 착용하였다. 당시 여우목도리 외에 수달, 너구리 목도리 등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우목도리가 가장 값비쌌다. 기생들 역시 이를 착용하여 부(富)를 과시했을 것이다. 또한, 목도리나 솔뿐만 아니라 스카프(scarf)도 착용했으며 얇은 소재의 스카프는 방한용이 아닌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52) 권행가(2001), 앞의 논문, pp.94-95

53) 금기숙 외 (2002), 위의 책, p.107

54) 금기숙 외 (2002), 위의 책, p.136

<표9> 서양 장식품과 화장을 한 근대 조선 기생

	머리핀, 스카프, 시계, 반지, 입체화장	술, 게이샤 화장	스카프	귀걸이, 게이샤 화장
장식품				
출처	『엽서속의 기생읽기』			

**(3) 금 장신구**

<표9>의 근대 조선 기생사진을 살펴보면 금(金) 장신구를 착용한 기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기생들은 손목시계를 차거나 반지, 귀걸이, 팔찌 등을 착용하고 일부러 금니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금 장신구 착용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으로 비춰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대 조선 기생들은 금 장신구를 착용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다.

**(4) 양산**

근대 양산은 19세기말~20세기 초 유럽을 시작으로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 여성들은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아르누보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자수나 레이스가 달린 양산을 들고 다녔다.<sup>55)</sup> 근대 조선 여성들은 외출이 가능해졌지만 얼굴을 드러내기를 꺼렸고 때마침 등장한 양산은 얼굴을 가리기에 적합한 장식품이었다.

기생들 역시 양산을 쓰고 다녔는데 여학생의 검정양산과는 달리 기생은 붉은 양산을 쓰고 다녔다. 점차 양산이 착용자의 취향을 나타내는 소품이 되자 모양과 소재 등도 다양해졌다.

또한, 일본 양산인 히가사(日傘)<sup>56)</sup>가 유행하여 기생들은 히가사나 문양이 있거나 레이스

55) 황정윤(2002), 앞의 논문, p.22

56) 湯本豪一著,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2004) 『일본근대의 풍경』서울: 그린비,

(lace), 수(繡)가 달린 화려한 양산을 들고 다녔다. <표10>을 통해 일본 여성들의 양산과 히가사를 착용한 모습과 근대 조선 기생의 양산과 히가사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10> 근대 일본 여성의 양산과 히가사, 근대 조선 기생의 양산과 히가사

	일본 여성의 양산과 히가사	근대 조선 기생의 양산	근대 조선 기생의 히가사
형태			
출처	「근대 일본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 3.3 화장

개항과 더불어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에는 외국 화장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화장품이 청(靑)과 일본(日本)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당시 밀수 화장품의 공급처는 주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 기생이나 조선 기생이었다. 당시 기생의 단골손님 중에는 청(靑)나라 무역 상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기방(妓房)에 올 때마다 기생들에게 외제화장품을 한 묶음씩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sup>57)</sup> 기생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화장품을 방물장수나 매분구에게 팔았고

p.304

히가사(日傘)는 햇빛을 가리는 양산(洋傘)으로 일본은 에도시대(1603-1867)부터 종이 우산인 반가사(番傘)와 같은 우산(雨傘)을 사용하였고 1860년경부터는 양산인 히가사를 사용하였다.

57) 전완길 외(1995) 『한국 생활문화 100년, 1984-1994』서울: 장원, pp.55-56

‘1910년대만 해도 지금 서울의 소공동과 퇴계로의 일신초등학교 근처에는 백인 창녀들이 어울려 살았다. 이들은 백계(白系) 러시아 아가씨거나 유태인의 혼혈 남자들로 이들의 단골손님은 주로 청국이 무역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화대(花代)를 현금으로 치르는 법이 없다. 으레 화장품 한 꾸러미씩을 청국서부터 마련해 온다. 그 화장품 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외국제 화장품이 극히 필요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중략) 양 화장품의 출처는 바로 이 백인 창녀촌이었고, 일본 화장품의 출처는 화월루, 청화정 등 일본 요정과 목정동의 쌍림관 용산의 도산 등 일본 유곽이었다... 왜분(倭粉)보다 양분(洋粉)이 더 비쌌기 때문에 명월관 등의 일류 기생만이 양분을 사 썼고 왜분은 은근짜들이 사 썼다. 그리고 그 밖에 낙원동이나 도동, 을지로에 산재해 있던 갈보들은 이 외래분을 사 쓸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가

이는 비싼 값으로 일반 가정집에 팔려 나갔다.<sup>58)</sup> 밀수화장품 가운데서도 청(靑)을 통해 들어온 양분(洋粉)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왜분(倭粉)보다 품질이나 포장이 좋았기에 인기가 있었고 값도 더 비쌌다.

근대 신문에는 일본, 서양여성의 사진과 함께 화장품을 광고하는 면이 많았다. 당시 외제화장품을 즐겨 사용했던 기생들은 점점 외국여성들과 비슷한 입체화장을 하였다. 근대 조선 기생들은 일본 게이샤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기에 그들의 화장을 모방할 수 있었다. <표9>의 사진을 통해 근대 조선 기생은 일본 게이샤처럼 피부는 창백하게 분화장을 하고 입술은 작고 빨갛게 화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서양영화가 성행하자 기생들은 외국 여배우들의 영향을 받아 <표9>의 사진처럼 눈썹은 가늘고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눈과 볼에 색을 넣어 입체화장을 하였다. 근대 잡지에는 턱 화장이나 눈, 코에 색을 넣는 입체적인 화장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체화장은 소수의 신여성들이나 기생들만 즐겨했다.

그러나 짙은 화장은 기생집단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장한』에 실린 글<sup>59)</sup>에서도 기예(妓藝)가 없으면서 얼굴만 미인이거나 진한 화장으로 꾸민 기생들을 ‘화장기생’이라 부르며 외모만을 앞세운 기생으로 수명이 짧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 4. 결론

조선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다.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서구의 문화나 문물 등도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복식에 반영되어 근대 조선 복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편, 기생들은 경시청의 통제로 단속령과 기생조합과 같은 제도 하에 생활하였다. 당시 기생은 일반 여성과의 구별을 위해 복식에 규제를

---

못했다. 그러기에 권번기생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계급을 나누는 말로 ‘양분기생’, ‘왜분기생’, 국산인 ‘연분(鉛粉)기생’ 따위의 은어를 썼던 것이다.’

58) 俞水敬(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서울: 일지사, pp.148-149

59) 「外國인이 본 朝鮮의 妓生」 『장한』 제1호, 1927년 1월 10일, p.21

‘근래에 들면서 가무를 잘하는 妓生보다는 얼굴에 분을 하야케 바른 美人妓生이 더 훨씬 만타합니다. 얼굴이 비록 잘 못생기었다 하드래도 그에게 훌륭한 才藝만 잇다하면 그는 價値잇는 기생이요. 또 妓生다운 妓生이라하겠스니 그의 生命은 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는 아무 재조도 업고 다만 젊은 나회에 얼굴 고흔 것만 자랑한다 하면 그의 수명이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가? 이것이 소위 化粧妓生이라는 것이니 化粧기생은 일시는 얼굴이 어엿븐 탓으로 잘 불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의 수명은 아참의 이슬과 가치 극히 짤을 거입니다.’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속에서도 근대 조선 기생들은 당시 어느 여성보다도 신문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대중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으며, 경시청의 통제 하에 역, 서점, 사진관 등에서 기생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엽서 등을 판매하여 근대 조선 기생의 모습을 널리 알렸다.

근대 조선 기생의 사진이나 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쪽진머리에 전통한복 차림이다. 이는 당시 권번의 복장규제로 인한 복식으로 각종 매체에서 팔리는 사진과 엽서 등은 기생의 일상복이라기보다는 저녁 일과인 ‘놀이’ 시의 복장이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여성과 기생을 복식으로 구별하고자 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기생의 일상복은 당시 선망의 대상이던 신여성이나 여학생들의 복식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 조선 기생복식은 전통적인 머리 형태에 한복을 기본으로 한다. 조선후기 기생은 쪽진머리를 했는데 이는 근대의 기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통적인 머리 장식구인 비녀와 뒤꽂이를 사용하였다. 전통의상인 저고리는 서양복식의 상의와 같이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통은 넓어졌다. 하지만 기생의 저고리는 일반 여성과 달리 진동이 꼭 맞고 소매통이 더 넓어져 춤을 출 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금장신구를 착용하여 부를 과시했다.

반면 일본 여성복식의 영향을 받은 복식으로 첫째, 전통적인 쪽진 머리에 일본 여성에게 유행했던 옆 가르마, 미미가쿠시나 미미다시와 같은 웨이브를 넣는 형태, 애교머리 등의 형태가 더해졌다. 또한,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고정시키거나 복식규제에 따른 단발금지를 어겼을 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다리를 드리기 위해 머리핀을 사용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하후상박의 ‘거들치마’에서 게이샤의 기모노 실루엣과 유사한 ‘주릿대치마’가 나타났다. 이는 속옷을 간소화하고 긴 치맛자락을 몸에 휘감아 허리띠로 고정하여 일자형 실루엣을 연출한 것이다. 셋째, 근대 일본 여성복식에 나타난 반양복과 같이 근대 조선 기생복식에도 전통복식에 서양복식을 혼합한 반양복이 나타난다. 넷째, 서양 장식품 등으로 치장하여 패션리더로서 부의 과시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본 게이샤의 화장과 서구의 입체화장법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외국인 손님의 취향에 맞게 연출하였다.

이처럼 근대 조선 기생은 조선시대의 전통 가무, 가사 등의 기예를 전승한 예술전승자이자 외국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패션리더의 위치에 있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의 계승과 신문물 전파의 중간 매체가 된 것이다. 한편, 기생들은 기업으로 얻은 부를 과시하고 자신을 치장하였으나 신분제 폐지에도 기생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여성이나 여학생의 복식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또한, 게이샤와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복식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 조선 기생은 대중예인, 외국인이 열광하는 조선의 예술전승자, 일반 여성들의

패션리더로서의 모습을 지녔으나 실상은 손님의 선택을 받는 접대부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복식과 기예를 갖춰야만 했다. 또한, 근대 기생의 패션은 일반 부녀자들에게 사치풍조를 일으킨다하여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 【참고문헌】

####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 우리말 샘 사이트 검색. <https://opendict.korean.go.kr>
- 이미지로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www.koreanity.com](http://www.koreanity.com)

#### <단행본>

- 京城觀光協會(1934) 『京城案内: 仁川·開城』京城 京城觀光協會.
- 국립민속박물관(2009) 『엽서 속의 기생읽기』서울: 민속원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서울: 민음사
- 금기숙 외(2002) 『현대 패션 100년』서울: 교문사
- 김경동(1997) 『현대의 사회학』서울: 박영사
- 김영숙(1999) 『한국복식문화사전』서울: 미술문화
- 김용의 역(2012) 『조선만화』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1998)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개화이후~해방전후』서울: 현암사
- 동아일보사(1991)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서울: 동아일보사
- Liza Cnihfield Dalby저, 유용훈 역(1999) 『게이샤』서울: 우석
-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2001) 『우리옷 이천 년』서울: 미술문화
- 부산근대역사관(2003)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부산: 부산근대역사관
- 신현규(2005) 『꽃을 잡고』서울: 경덕
- 요시카와 헤스이 저, 김일권·이애나가 유코 옮김(2013) 『근대문화사 읽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서울: 민속원
- 俞水敬(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서울: 일지사
-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희경, 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 이경민(2005)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서울: 사진아카이브연구소
- 이경자 외(2003) 『우리 옷과 장신구』서울: 열화당
- 이창배(1976) 『韓國歌唱大系』서울: 흥인문화사
- 전완길 외 (1995) 『한국 생활문화 100년, 1984-1994』서울: 장원
- 조풍연(1989) 『서울 잡학 사전: 개화기의 서울 풍속도』서울: 정동출판사
- 채만식(1994) 『태평천하』서울: 신원문화사
- 湯本豪一저,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2004) 『일본근대의 풍경』서울: 그린비
- 한국학문헌연구소(1973) 『官報: 舊韓』서울: 아세아문화사

#### <학술지 및 학위논문>

- 공승연(2006) 「근대 기생 복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 권행가(2001)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미술사논단』제 12호, p.84, pp.94-95

- 박애경(2001) 「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女性)이론』 4호, pp.229-230  
송연옥(1998) 「대한제국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 일제 신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40, p.270  
오현화(2004) 「예단일백인을 통해 본 1910년대 기생집단의 성격」 『어문논집』 제49집, p.318  
이행화(2015) 「근대 일본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복식의 서양화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0, p101, p.105  
황정운(2002) 「일본 여성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pp.26-27  
한조운(1910) 「조선의 기생」 『문예구락부』 16권 13호, p.150

<정기간행물>

- 「개벽」 제48호, 1924년 6월 1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9일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30일  
「매일신보」 1919년 12월 9일  
「매일신보」 1919년 11월 14일  
「매일신보」 1937년 12월 16일  
「별건곤」 제 10호, 1927년 12월 20일  
「별건곤」 제 36호, 1931년 1월 1일  
「신여성」 제10호, 1924년 11월 17일  
「신여성」 제25호, 1926년 4월 1일  
「신여성」 제69호, 1934년 4월 4일  
「장한」 제1호, 1927년 1월 10일  
「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

---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3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

<要旨>

근대 조선 기생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희

조선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복식에 반영되어 조선의 근대 복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편 기생들은 화류계라는 특수성과 경시청의 통제로 기생단속령과 기생조합 등의 제도 하에 생활하였다. 근대 조선 기생복식은 전통적인 머리 형태에 한복을 기본으로 한다. 저고리는 서양복식의 상의와 같이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통은 넓어졌다. 반면 일본 여성복식의 영향을 받은 복식으로 첫째, 전통적인 쪽진 머리에 일본 여성에게 유행했던 옆 가르마, 웨이브를 넣는 형태, 애교머리 등의 형태가 더해졌다. 또한,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고정시키거나 복식규제로 인한 단발 금지로 다리를 드리기 위해 머리핀이 사용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하후상박의 ‘거들치마’에서 게이샤의 기모노 실루엣과 유사한 ‘주릿대치마’가 나타났다. 셋째, 일본 여성복식에 나타난 반양복과 같이 근대 조선 기생도 전통복식에 서양 복식을 혼합한 반양복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본 게이샤의 화장과 서구의 화장법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외국인 손님의 취향에 맞게 연출하였다. 이처럼 근대 조선 기생은 조선시대의 전통 가무, 가사 등의 기예(技藝)를 전승한 예술전승자이자 외국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패션리더의 위치에 있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의 계승과 신문물을 전파하는 중간 매체가 된 것이다. 하지만 기생들은 기업으로 얻은 부를 과시하고 자신을 치장하였으나 신분제 폐지에도 기생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여성이나 여학생의 복식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A Study on the Modern Joseon Gisaeng Costume Culture

Cho, Sun-Hee

Joseon experienced drastic social changes while going through modernization. Modernization changed lifestyle and values of people, which were reflected in the costumes and modern costumes of Joseon were changed to the shape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Meanwhile, gisaengs (Joseon geisha) lived under the systems such as regulations and gisaeng un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as a prostitute and control of the metropolitan police. Modern gisaeng costumes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hair style and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es). Jeogori (jacket) increased in length and the width of sleeve widened same as the top of western costume. On the other hand, influenced by the costumes of Japanese women, First, hair styles like parting hair at the side, waved hair and lovelock which were popular among Japanese women were added to the traditional buns. In addition, hairpin was used to fasten waved hair due to the ban on bobbed hair by the control over costumes. Second, ‘geodeulchima (a lined skirt)’ of the traditional hahusangbak (slender upper body and exaggerated lower body) and ‘juritdaechima (a skirt designed to wear by hiking up to chest level and fasten)’ similar to the kimono silhouette of geisha were also shown. Third, same as the costumes of Japanese women, a semiformal suit that mixed traditional and western costumes was shown in modern gisaeng. And they expressed style suited to the taste of foreign guests of those days by accepting both makeup style of Japanese geisha and that of the west. Likewise, modern gisaengs were in the position as a successor of artistic skills of traditional singing and danci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as a fashion leader who assimilated western civilization quickly. Ironically, they played an intermediate role to inherit tradition and spread new culture. Although gisaengs showed off wealth they got through the job and decorated themselves, they imitated costumes of the new women or female students to hide their identity as a gisaeng even after the abolition of the caste system.